

‘골재 부족’ 지하철 등 광주·전남 대규모 공사 스톱 우려

광주·전남 레미콘회사 사용 모래 49.4% 전북에서 공급 받아 주민 민원·환경훼손 논란에 인허가 어려움...건설업계 ‘악재’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철도 2구간 등 광주·전남 대규모 공사 현장들이 골재가 없어 줄줄이 공정을 멈출 수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지역 내에서의 골재 채취가 주민 민원, 환경 훼손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량의 골재를 타 지역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공급량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비·인건비 상승에 고금리 등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또다른 악재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조합 권역 내 레미콘 회사 44곳에서 사용한 모래의 49.4%가 전북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자갈, 모래로 구성되는데, 모래가 평균 40%를 차지하는 주재료다. 지난해 레미콘 제조에 사용된 모래는 총 280만㎥로 권역 내에서는 함평(28.9%)과 곡성(9.9%), 영광(7.1%)에서 주로 공급됐다. 레미콘 회사들은 지난해 전체 모래의 남원(29.5%)과 고창(14.8%), 순창(5.1%)에서 가져왔다. 그러나 최

근에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특히 권역 내 주산지인 함평은 채취량 제한으로 전년 대비 모래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4년 전 함평 모래 가격은 ㎥당 1만5800원이었지만, 올 7월 기준 2만2500원으로 42.2% 증가했다. 남원 모래의 경우는 4년 전 2만3000원에서 2만9000원까지 뛰었다.

레미콘 업계는 “골재 채취업자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모래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도 문제”라며 “모래 가격 상승은 결국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재 부족 사태는 어려운 골재 채취 인허가 과정과 맞닿아 있다. 골재 채취 인허가 권한은 일선 자치구와 시군에 있으나 주민 민원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신규 인허가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에서 골재 채취 인허가 신청이 있었다가 무산된 뒤 5년 간 채취 허가

가 없었다.

레미콘 업계는 올 초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전남도를 찾아 골재 채취 수급 현황과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전남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레미콘 업계는 골재채취법에 골재수급계획(5조)과 연도별 골재수급계획(6조)을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협의해 수립해야 하는 만큼 이들 지자체가 적절한 골재 채취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이 민간공사 뿐만 아니라 관공공사에도 투입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연구개발특구 부지 조성,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비수기인 장마가 끝난 후 골재 부족 사태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황 시공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골재 부족 사태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명환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부장은 “장기적으로 ‘골재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골재수급대책 용역을 통해 지역 내 골재 수급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의 항공통신 장애로 국내외 공항의 발권시스템 등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광주공항 탑승장에서 승객들이 TV뉴스를 통해 통신 장애 소식을 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MS발 IT 대란’ 국내 항공·게임 등 피해

반도체·공공기관은 ‘정상’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 발생하면서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의 발권·예약 시스템과 국내 온라인 게임 서버가 먹통이 되는 등 국내에서도 피해가 현실화했다.

하지만, 보안 문제로 자체 서버나 국산 클라우드를 쓰는 공공기관이나 주요 대기업, 은행 업계 등 주요 기업에서는 피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MS발 IT대란에 지난 19일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

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잿스타, 홍콩익스프레스 등 일부 외국 항공사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Navitaire) 시스템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IT 서비스는 약 12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다.

이번 사태로 제주항공 47편, 이스타항공 26편, 에어프레미아 2편 등 총 75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

연됐다. 결항편은 없었다.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일부 온라인 게임도 영향을 받았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현재까지 이로 인한 영향은 없는 상태다.

또 자동차, 배터리, 정유·화학, 철강, 조선, 상사, 방산, 건설 등 주요 업계도 현재까지 보고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들은 국가정보원 인증 등을 거쳐야 해 네이버, KT 클라우드 등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윈도 PC를 사용하는 직장인, 학생 등 일반인들 가운데 장애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연합뉴스

■ 인터뷰 - 광주 찾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민전 의원

“자유민주질서 회복 위한 투쟁 호남은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김민전 국회의원은 “자유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투쟁에서 호남은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후보는 지난 20일 광주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치학자 출신으로서 호남을 떠올리면,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피와 땀,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이제 제2의 민주화운동을 꿈 꿀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호남과의 동행”을 강조했다.

현재 김민전·김재원·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가나다순) 총 9명의 후보가 최고위원 4석을 두고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유일한 여성인 김민전 후보는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최고위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김 후보는 “정치 전문가가 ‘정치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그간 쌓아왔던 모든 시스템이 ‘이재명 민주당’의 폭거로 무너지고 있다. 이 현실을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30년간 정치학자로 활동해온 저의 전문성이 분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출마 선언 당시에도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 전문성’과 경험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약 2년은 큰 선거가 없다. 이는 반성과 개혁의 적기이다”며 “그간 정치학을 공부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우뚝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또 “차분하게 앞으로 2년 동안 조직강화와 정책정당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분열된 지지 기반을 다시 하나로 복원하겠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가 일부 과열되고 있는 현상과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저는 계파정치를 지양한다. 그러나 작금의 선거운동은 전부 러닝메이트, 계파공세로 오염돼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우리 당 조직의 통합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고 한다”며 “저는 당의 분열된 지지기반을 복원하는 거말뭇 역할의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화합과 결속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총선 과정에서의 호남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호남에는 오랜기간 저희를 믿고 지켜봐주시는 많은 당원분들이 계신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며 “우리 당이 개혁에 성공한다면, 전국 중 호남으로부터의 반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우리 당 혁신의 바로미터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치과의사인 아들이 지역 검진을 가 보면, 서울에서 먼 지역 아이의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한다”고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나타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문제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능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었고, 윤정부는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데 미숙하지만 실속을 챙기고 있다”면서 “문 정부에서 러시아 가스 송유관이 논의됐는데 이게 실행됐으면 러시아 전쟁으로 우리는 망했을 것이고 탈원전도 되풀이 됐다면 (체코 원전 수주)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